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21년 유럽시장을 이끌 트렌드와 새로운 시장기회를 잡아라!



KOTRA 유럽지역본부 | kotra

2021년 유럽시장을 이끌 트렌드와
새로운 시장기회를 잡아라!

CONTENTS

I

시장현황 및 2021년 전망

II

코로나 신인류가 열어가는 신시장

III

기회요인과 진출전략

IV

시장진출 유망품목 및 서비스



I

코로나 직격탄 맞은 유럽, 시장현황 및 2021년 전망

1. 유럽시장의 이해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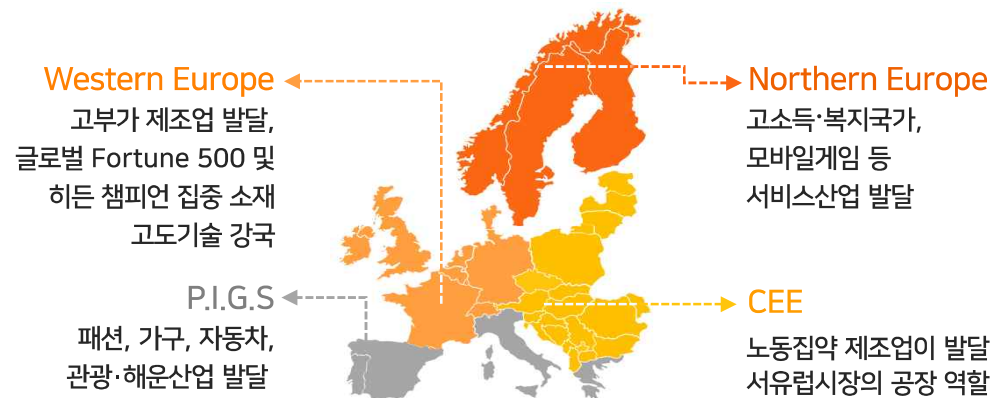
한눈으로 보는 유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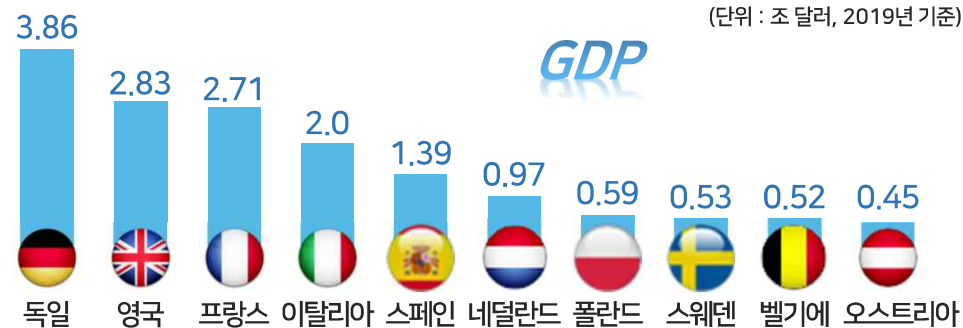
<자료원: 관세청, EUROSTAT>

유럽시장의 특성

- ✓ 권역별 차별화된 특화산업과 동서간 조직적 분업체계가 확립된 시장



유럽 상위 10대 경제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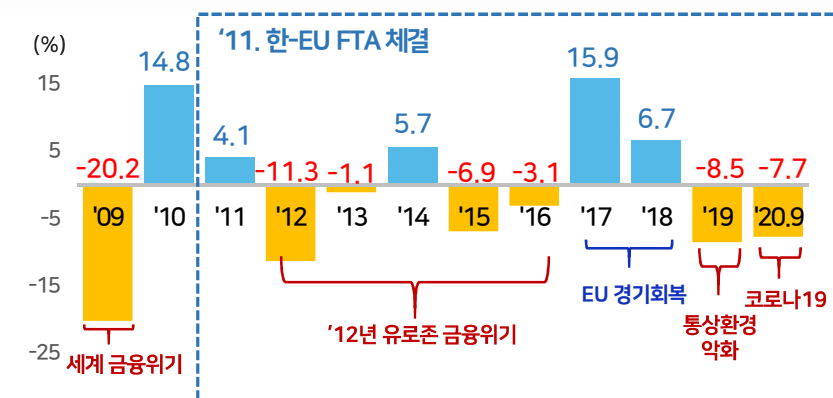


<자료원: IMF>

2. 한-유럽의 경제관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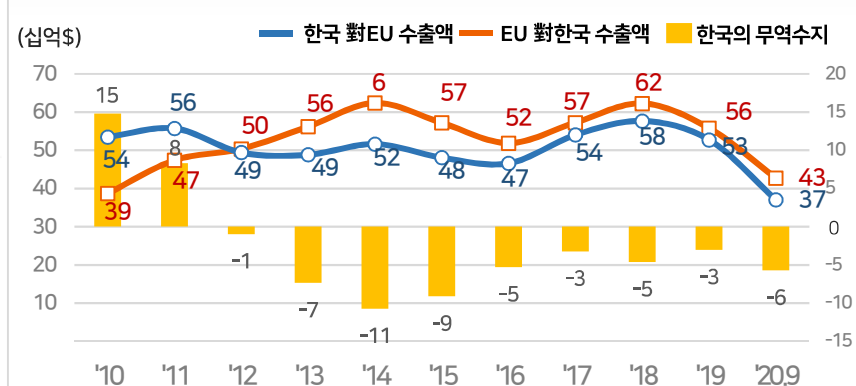
유럽

對EU 수출액 증감률 추이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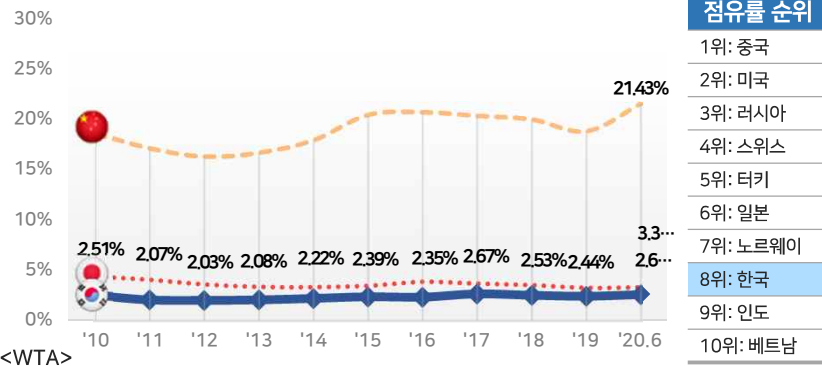
한-EU 무역확대



<관세청>

한국의 EU역외 수입시장 점유율 개선

▶ 한 vs 중 vs 일 EU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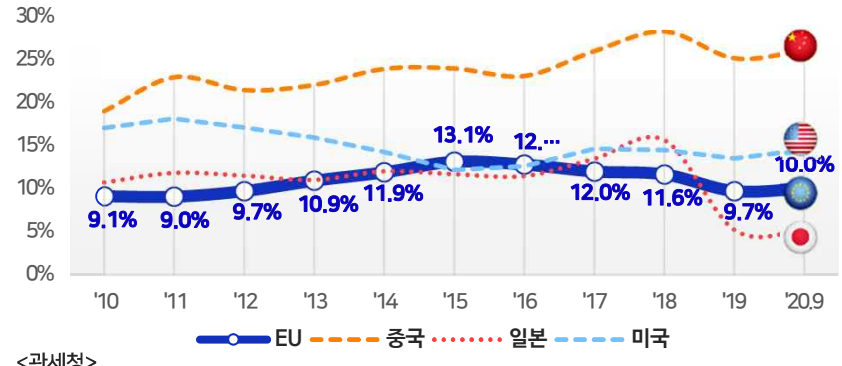
<WTA>

EU 역외수입
점유율 순위

- 1위: 중국
- 2위: 미국
- 3위: 러시아
- 4위: 스위스
- 5위: 터키
- 6위: 일본
- 7위: 노르웨이
- 8위: 한국
- 9위: 인도
- 10위: 베트남

EU의 한국시장 점유율

▶ EU vs 중 vs 미 vs 일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관세청>

2. 한-유럽의 경제관계(2/2)

유럽

10년간 유럽 수출품목 변화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10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반도체	반도체 (기타)	경유	컬러TV	합성수지
2011	선박	승용차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반도체	경유	합성수지	건설장비	제트유
2012	선박	승용차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제트유	합성수지	반도체	건설장비	타이어
2013	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전화기	제트유	합성수지	반도체	컬러TV	건설장비
2014	선박	승용차	자동차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제트유	반도체	건설장비	컬러TV
2015	선박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무선전화기	제트유	축전지	건설장비
2016	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축전지	철구조물	건설장비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제트유
2017	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해상구조물	합성수지	축전지	반도체	건설장비	평판 디스플레이	우유
2018	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축전지	반도체	건설장비	평판 디스플레이	우유	아연도판
2019	승용차	자동차부품	축전지	합성수지	선박	반도체	전자파	우유	제트유	건설장비
2020.9	승용차	자동차부품	선박	축전지	전자파	우유	합성수지	반도체	가정용 에어컨	선박

주요 수출품목 분석

승용차 선박 자동차 부품

▶ 전통 수출 주력 품목

- 10년간 對EU 수출 상위 5대권 내 상시 진입

축전지 (2015) 전기차 (2019)

▶ 수출 성장 품목

- 최근 10대권 내 신규 진입
→ 유럽 내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신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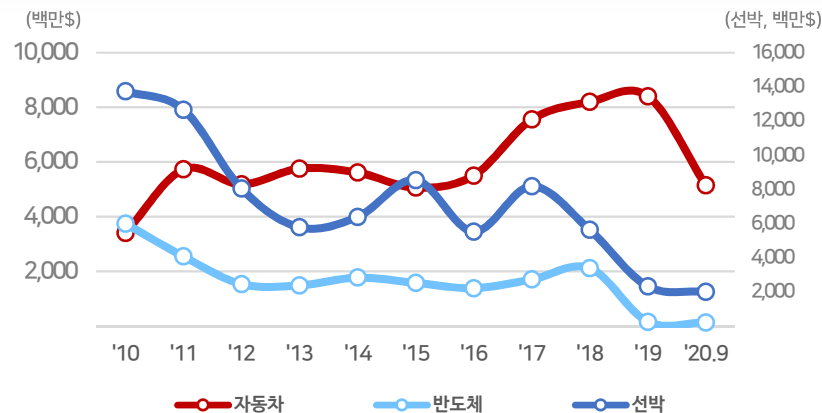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 전화기

▶ 수출 하향 품목

- 對EU 10대 주요 수출품에서 이탈
→ 유럽 현지생산 구축 & 해외생산기지 이전
- 평판디스플레이 : 헝가리, 슬로바키아 생산
- 무선전화기: 베트남 생산기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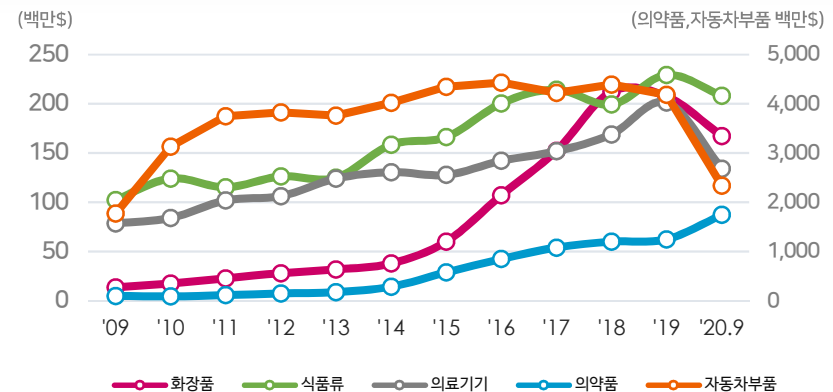
<관세청 통계 분석>

대기업 품목군 수출액 추이



<관세청>

중소기업 품목군 수출액 추이



<관세청>

3. '20년, 코로나로 유럽경제 직격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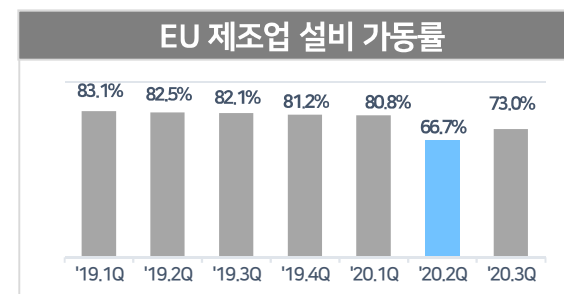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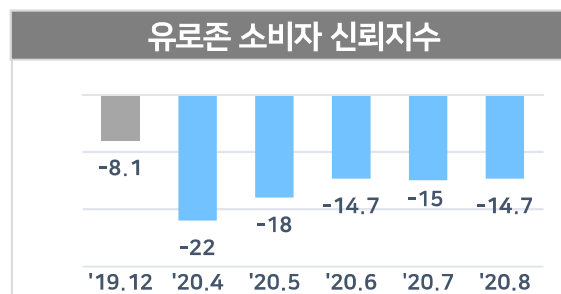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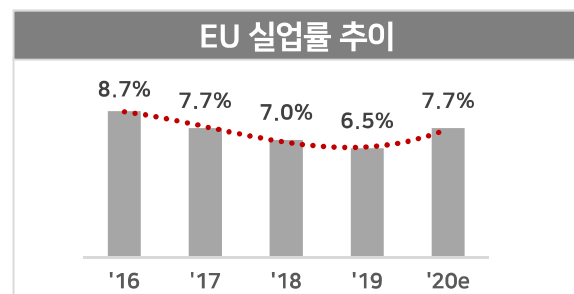
유럽

▶ 2020년 EU -7.4% 역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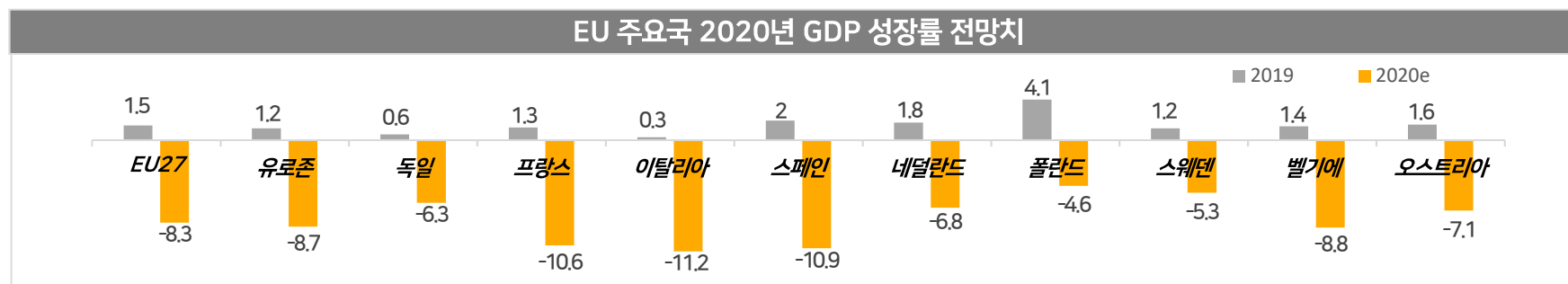
▶▶ 건조한 성장세 이어오던 EU, 2020년 EU27 GDP성장률 -7.4% 하락 예상

☑ 2.1% ('16) → 2.7% ('17) → 2.1% ('18) → 1.5% ('19) → -7.4% ('20)

▶▶ EU 실업률 7년 만에 증가세 전환,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 개선 홍보



▶▶ 20년, 27개 EU회원국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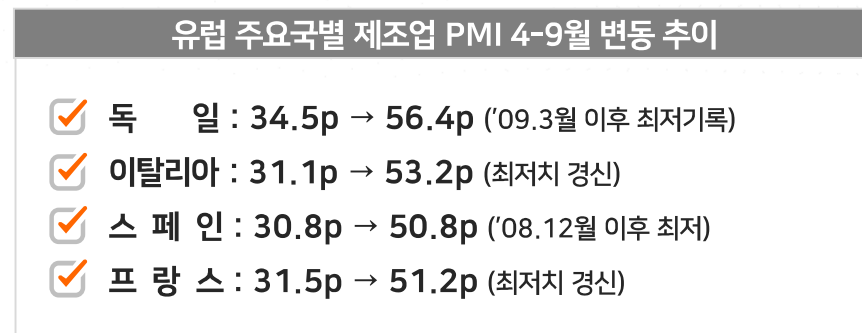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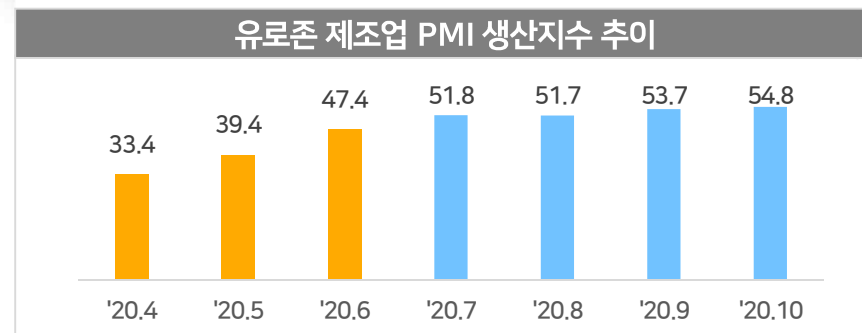


4. '20년 하반기 경기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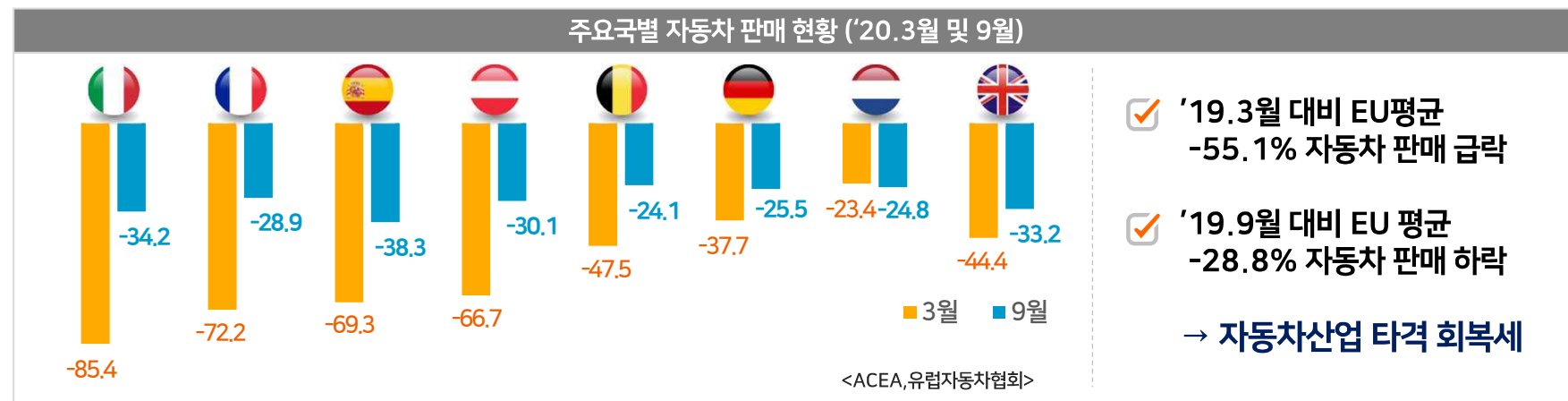
유럽

▶ 강력한 회복세로 유럽 제조업 경기 성장세 지속

▶▶ 유로존 제조업 PMI 지수 4개월 연속 기준치(50p) 상회, '18.7월 이후 최고치 달성



▶▶ 유럽 제조업의 상징, 자동차산업의 타격 회복세



5. '21년 경기 전망

유럽

▶ 코로나에 따른 EU경기 위축 폭, '21년 점진적으로 회복 예상

10년간의 유럽경제 성장률 추이



구분	'16	'17	'18	'19	'20e	'21e
EU	2.0	2.8	2.1	1.5	-7.4	4.1
유로존	1.9	2.6	1.8	1.3	-7.8	4.2

✓ EU 경제 성장률, '20년 4.1% 성장 전망

- 각국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2분기 이후 EU실물경기 회복세 진입, '21년 역대 민간소비(4.2%) 및 투자(7.6%) 모두 완만한 증가 예상

권역별 주요국 GDP

▶ Western Europe

국가명	'19	'20e	'21e
독일	0.5	-5.6	3.5
프랑스	1.3	-9.4	5.8
영국	1.3	-10.3	3.3

▶ P.I.G.S

국가명	'19	'20e	'21e
포르투갈	1.7	-9.3	5.4
이탈리아	0.1	-9.9	4.1
그리스	2.1	-9.0	5.0
스페인	2.3	-12.4	5.4

▶ Northern Europe

국가명	'19	'20e	'21e
스웨덴	1.7	-7.4	4.1
덴마크	1.7	-3.9	3.5
핀란드	1.5	-4.3	2.9

▶ C.E.E

국가명	'19	'20e	'21e
폴란드	4.4	-3.6	3.3
체코	2.6	-6.9	3.1
헝가리	4.4	-6.4	4.0
슬로바키아	3.6	-7.5	4.7

- ✓ GDP 대비 관광업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중심으로 하락폭 막대하나 정부주도의 공공, 민간 투자 확대 본격화에 따라 경기 회복 빨라질 것으로 전망





II

코로나 신인류가 열어가는 신시장

1. 유럽, 코로나19發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

유럽

- ✓ 팬데믹 긴급 매입프로그램 (PEPP) 도입, €7,500억 추가 양적완화 시행
 - 코로나19 이전 기 예정된 QE 포함, '20년 ECB의 자산매입 규모는 총 €1조 1천억 규모
 - 국가별 채권 매입 한도 제거 등 시행기준 완화를 통해 취약국 집중 지원 발판 마련

- ✓ TLTRO III (장기대출프로그램) 대출금리 추가 인하 ('20.6~'21.6) 및 대출한도 확대
 - 대출금리 25bp 인하 결정 이후(3.12), 25bp 추가 인하 (4.30)를 통해 시중은행에 유동성 공급

- ✓ €5,400억 경기부양책 시행
 - ① 국별 GDP 2% 한도내 저리대출 (€2,400억)
 - ② 중소기업 대출 보증 (€2,000억)
 - ③ 실직자 지원 및 일자리창출 (€1,000억)

- ✓ EU공동 경제회생기금 설치 합의
 - 지급유형(보조금or대출) 및 규모

- ✓ EU 재정 준칙 완화 합의
 - 안정성장 협약 예외 적용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 및 정책지원 시행 가능



- 독일
 - €7,560억 규모의 경기부양패키지 승인
 - 가게 및 기업에 유동성 긴급지원 피해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기업대출조건 완화, 수출보증, 세제지원 등

- 이탈리아
 - €7,500억 규모의 경기부양패키지 승인
 - 대출보증, 상환연기 등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고용유지, 자영업 재난수당 등 가계안정 도모

- 스페인
 - €1,000억 국가자금 보증 신용지원, 실직자 및 자영업자 대상 소득지원, 보건분야 개발지원 등

- 프랑스
 - €4,100억 규모의 기업, 가게, 방역 예산 배정, 피해기업 대출보증, 보건분야/취약계층지원 등

“유로존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는 한계가 없을 것... 권한 내의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각오되어 있어”

-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

2. 트렌드 - "디지털"(1/2)

유럽

유럽 전역 걸쳐 산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의 중요성 부각

정부 및 기업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5G 도입 및 관리시스템의 마련과 스마트팩토리,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생산효율화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EU집행위 6대 주요 정책안 중 디지털화)



▶▶ 산업분야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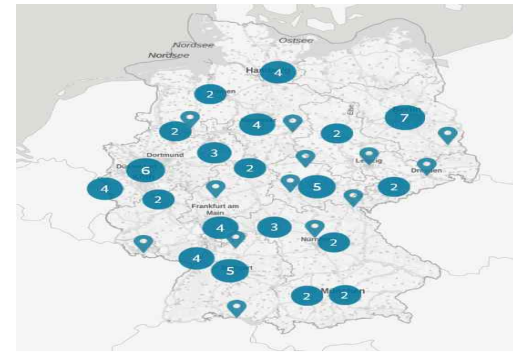
I 5G, 스마트팩토리, 3D 프린팅 기술 이용한 '생산효율화' 촉진

- ☑ 팬데믹으로 일부 인프라 구축 지연, 5G 조기 도입 필요성 부각
→ 이탈리아 '21년까지 120개 도시에 인프라 구축계획, 독일 '25년까지 전국 5G 연결 목표
- ☑ 효율성 제고를 위한 3D 프린팅을 활용 제품생산이 본격화될 전망
→ 핀란드 제약기업 오리온, 제품 생산 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부품조달 기간 1주 이내로 단축, 기존 오프쇼어링에서 온쇼어링으로 전환

Industry 4.0 추진중인 기업 377개사



Industry 4.0 Testbed 약 80개소



2. 트렌드 - "디지털"(2/2)

유럽

▶▶ 유럽 주요기업의 D.T. 전환 동향

독일 자동차 기업 벤츠(Daimler)



- ▶ '25년까지 전기차 개발에 100억 투자 계획 발표('16년 11월)
- ▶ '20년 5.28일 볼보와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협업에 1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 향후 합작회사 설립 예정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L'Oreal)



- ▶ D.T 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투자
- ▶ 개인의 피부상태에 따라 화장품포물러를 즉석에서 제조하는 인공지능 뷰티디바이스 기기 'Perso' 개발

영국 자동차 기업 재규어(Jaguar)



- ▶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사업 추진을 통한 활로 모색
- ▶ 가정내 발생하는 알루미늄 폐기물을 자동차에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혁신 기술 개발로 탄소배출을 최대 26%까지 감축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 ▶ 항공기 디스플레이 분야 사업 확장, '19년 LG전자와 JV를 설립하고 항공기용 디스플레이기술 분야 R&D 협력 중

독일 자동차 기업 BMW



- ▶ 자회사 Startup Garage(기술협력)를 통해 열린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분야 스타트업 발굴 확대

이탈리아 기계 기업 CNH



- ▶ 자율주행기술 기반 인공지능 트랙터 개발

2. 트렌드 - "언택트"(1/5)

유럽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경제 확대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팬데믹은 우리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법 등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면서 유로존 내 디지털유로 발행 가능성도 시사

즉,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전자결제 등 언택트 산업이 유럽 전역에 부상



▶▶ 재택근무, 코로나시대의 뉴노멀 공식 근무모델로 자리매김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홈오피스, 홈스쿨링, 원격의료 등 '강제 언택트' 발생

235개 독일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재 홈오피스
시행 권장"



"코로나 후에도
홈오피스 지속 의향"



"대부분의 대면회의,
화상회의로 대체가능"



재택근무 대표기업 예

SIEMENS

Siemens(독일), 코로나 이후에도 전세계 직원의 50%이상인 14만명, 재택근무 유지



유럽중앙은행(ECB), '21년까지 재택근무 실시

avast

AVST(체코), 원하는 직원 영구적으로 재택근무 실시

2. 트렌드 - "언택트" (2/5)

유럽

▶▶ 언택트 시대 신소비패턴은 S.A.F.E

Safe

개인 안전을 위한 제품

- 마스크
- 손소독제
- 체온계
- 자가진단의료기기
- 항균비누
- 청소용품, 세제
- 상비약 응급키트



At home

홈코노미 제품

- 홈오피스 관련 제품
(웹캠, 노트북, PC, 헤드셋 등)
- 홈뷰티케어 제품
(마용기기, 마사지기, 셀프네일케어 등)
- 홈트레이닝, 여가 관련
제품
(자전거, 게임기기, DIY 가구 등)



Foods

식품류, 주방제품

- 냉동식품
- 웰빙식품
- 밀키트
(쿠킹박스)
- 가정용간편식
(통조림, 면류 등)
- 소스류
- 주방용품세트
- 제빵재료



Electronics

IT, 전자제품

- 셀프 다이닝 가전
(제빵기기, 커피머신, 에어프라이기 등)
- 스마트워치
- 로봇청소기
- 블루투스 호환제품



2. 트렌드 - "언택트" (3/5)

유럽

▶▶ S.A.F.E 제품 수출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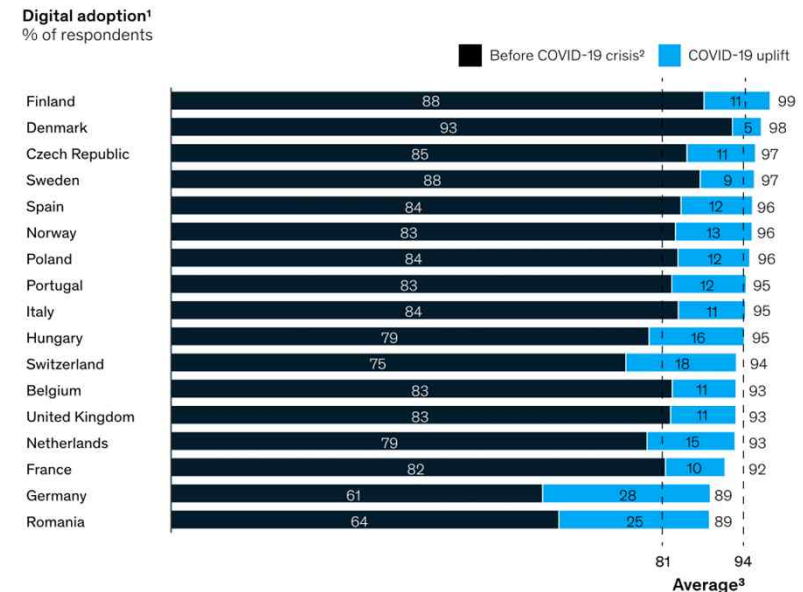
S.A.F.E의 수출 증가치 (9월 누계 전년동기 대비)

품목군	품목	한국의 對EU 수출 증가치
Safe	의약품	105.4%
	의료용 전자기기	7.4%
At home	진공청소기	51.9%
	접시세척기	143.2%
Foods	김	449.2%
	면류	40.2%
	인삼류	10.0%
Electronics	스피커	38.5%
	전산기록 매체	130.0%

* 자료원: 통계청

▶▶ 소비패턴 디지털화

유럽주요국 디지털 수용률 변화



- ✓ 유럽 17개국의 2만명 소비자의 평균 디지털수용률이 코로나 이전 81%에서 94%로 무려 **13% 크게 증가**
→ 가장 낮았던 독일은 28% 증가
- 통상 2~3년 소요되는 **소비패턴 디지털화가**
최근 6개월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자료원: McKins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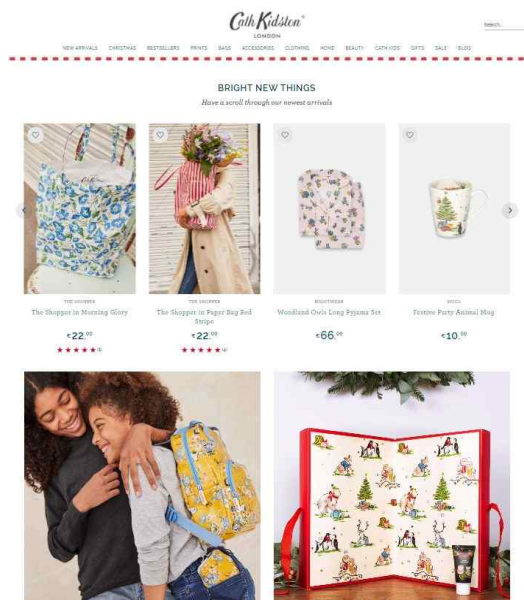
2. 트렌드 - "언택트" (4/5)

유럽

▶▶ 언택트 마케팅 유럽 기업 사례

영국 패션잡화 전문점 (Cath Kidston)

- ✓ "Digital First"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 발표.
오프라인매장 철수하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



식품전문체인점 (Lidl)

- ✓ 왓츠앱을 통해 쇼핑하기 한가한 시간대를 알려주는 서비스 시행
- ✓ 코로나로 대면접촉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 적용, Lidl 판매량 증가



독일 자동차기업 (폭스바겐)

- ✓ 디지털전략의 일환으로 최초 가상 모터쇼 개최
- ✓ 오프라인과 달리 참가인원 제한없이 폭발적 반응



2. 트렌드 - "언택트" (5/5)

유럽

▶▶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 변화로 주목받은 유럽 기업 사례

독일 가상이벤트 기업 우비벤트(Ubivent)

- ✓ 세계최초 가상 사이클 컨퍼런스 개최, 가상부스에 신제품 업로드,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진행, 전세계에서 4천여 참가자로부터 뜨거운 호평

체코 공유택시 기업(Liftago)

- ✓ 공유택시에 물품 및 음식배달 서비스 신규 도입, 코로나19 기간 매출 2배 이상 급증

세르비아 배송업체(Wolt)

- ✓ 코로나 계기로 '배달원을 만날 필요없는 배달 서비스' 도입, 단기간내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

프랑스 공연용 종이가구 제작기업(Breen)

- ✓ 각종 공연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던 중 언택트 트렌드를 착안,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 손잡이용 1회용 종이를 생산,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Liftago Will Do the Shopping Fo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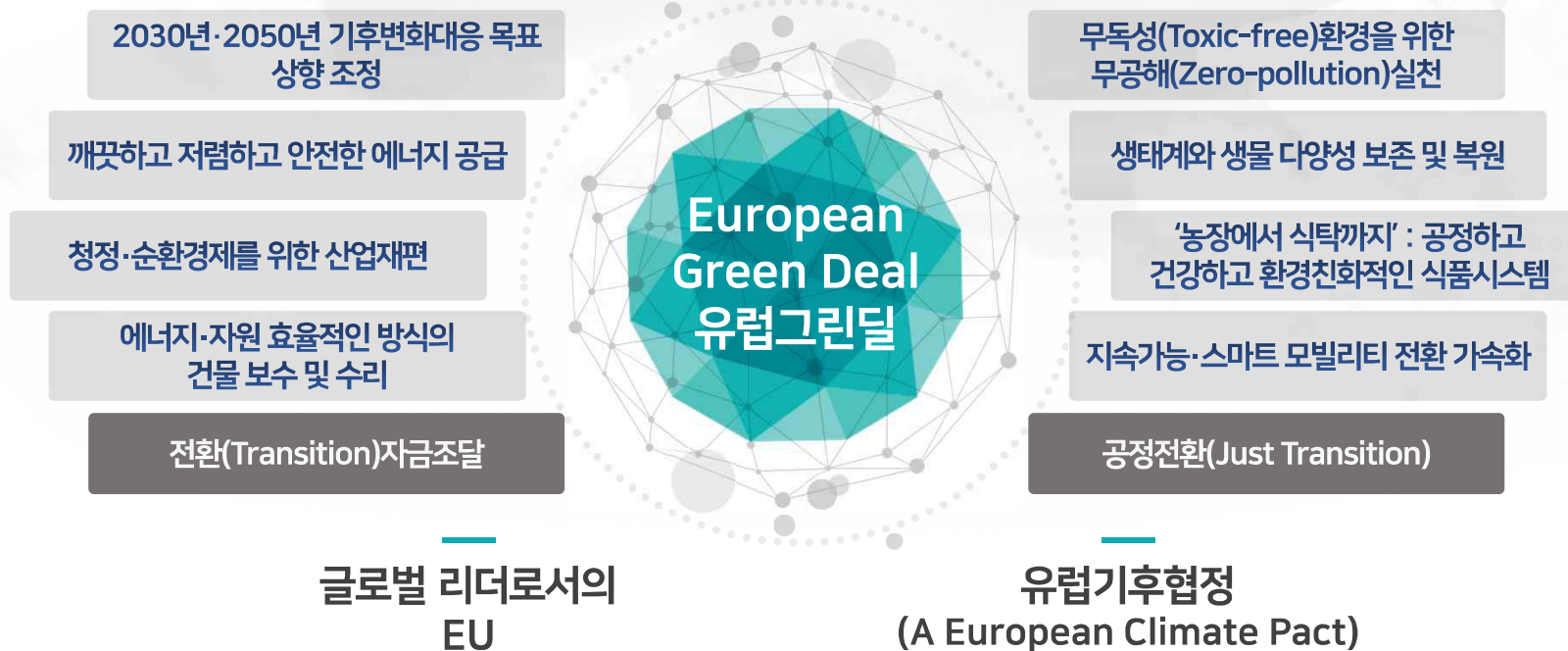
2. 트렌드 - “그린”(1/2)

유럽

▶▶ 유럽 그린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경제의 변화

- ✓ 新EU집행위는 6대 핵심정책으로 △ 기후변화 대응, △ 디지털화, △ 공정무역환경조성, △ 유럽형 사회시장경제구축, △ 유럽통합 확대, △ 민주주의를 제시. 이 중 최우선 정책으로 기후변화대응 “유럽 그린딜” 발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U경제의 변화



* 자료원: EU 집행위

2. 트렌드 - "그린"(2/2)

유럽

▶▶ 유럽 그린딜 세부목표 및 과제

기후변화 대응목표 상향조정

- ✓ 팬데믹으로 일부 인프라 구축 지연, 5G 조기 도입 필요성 부각
- ✓ 탄소국경세*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분야 해운 및 항공부문에도 확대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 ✓ 탈탄소화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 산업별 청정제품 생산
- ✓ EU 산업의 자주성 강화 (핵심소재, 기술, 보안 등의 분야에서의 외국 의존도 ↓)

지속가능한 운송

- ✓ 철도 및 수로 정비하여 복합운송네트워크 강화
- ✓ '25년까지 전기/수소차량 충전소 1백만개 설치 및 대체연료 개발지원

에너지 탈탄소화, 수소경제 확대

- ✓ 화석연료 사용배제, 재생에너지 활성화, 가스에너지 탈탄소화 등 에너지산업의 탈탄소화
- ✓ 재생에너지비율 확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 해상풍력 기술개발지원 및 투자확대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 ✓ 수소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수소전략 마련
 - 수소에너지는 높은 생산비용과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으로 시장형성이 지연되어왔으나, EU집행위 주도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확대추진

건축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

- ✓ 에너지효율성강화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 ✓ 유기농 재배 전환, 화학살충제 사용 50% 감축목표설정
- ✓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 및 예방 방안 마련

* 탄소국경세 : EU 각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상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있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것(생산비용으로 배출시설 이전 등)을 방지코자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부과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대체

** 탄소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받은 국가나 기업이 남은 할당량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제도



III

기회요인과 진출전략

1. 진출전략 - “GVC 재편기, 유럽시장 진출 기회 선점”(1/5)

유럽

▶▶ GVC의 변화

- ✓ EU 집행위원장,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논리로만 결정되지 않을 것” 유럽 GVC 대대적 변화 예고
 - 단일시장 기반 역내 RVC를 구축해 온 유럽, 국경폐쇄 및 수출규제 등 코로나 대응 조치를 계기로 보건 및 국가 안보분야의 NVC(National Value Chain) 구축 필요성도 再환기
 -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의약품 재고부족을 경험, 주요 의약품 역내 생산을 위한 리쇼어링 지원정책 검토 중

[단기]

제한된 분야(보건산업 등) 중심,
자국·지역 중심 리쇼어링 움직임

- ▶ 유럽내 ‘실존 가치사슬’(Existential value chain)의 필요성 언급, 보건 및 안보분야 유럽 역내 생산 중요성 역설 (독일 메르켈 총리)
 - [독일] 다임러, BMW 등 독일내 자체 마스크 생산 진행
 - [영국] 다이슨, 롤스로이스 등에 인공호흡기 자체생산 요청
 - [헝가리] MOL, 자동차 워셔액 생산라인 손세정제 대체
- ▶ EU 제약산업 공급망 재편과 역내 생산증대 필요성 주장(베라 요우로바 EU집행위원)
 - EU집행위, ‘20년 말까지 의약품 공급안정화와 신약품 혁신연구개발 조치를 담은 EU 제약전략 발표 예정

[중·장기]

‘Just in time’ → ‘Just in case’ 변화,
주요 산업 분야, 공급선 다변화 추진

- ▶ 對중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차·항공우주·의약품 등 유럽 주요산업의 전략적 RVC 수립 촉구 (프랑스 르메이어 재무장관)
 - ‘적시 공급’(Just in time)
 - ‘위험 분산’(Just in case)으로 안정성 추구
 - 유럽 주요 산업분야, 공급선 다변화 추진
 - * 독일 다임러의 경우, 모든 부품을 최소 2~3개 국가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 주요산업 리쇼어링·니어쇼어링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완전한 탈중국화는 여전히 신중

1. 진출전략 - “GVC 재편기, 유럽시장 진출 기회 선점”(2/5)

유럽

▶▶ GVC의 변화

- ✓ 높은 대중 의존도로 GVC 한계점 부각, 공급망 다변화와 위험 분산에 대한 관심 대두

- 코로나 영향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역내경제통합과 역내중심의 공급망 구축전략 강화 추세
- EU-중국 간 원자재·중간재 공급차질로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비용은 연간 GDP의 3.5%로 추정
- 특히 피해가 큰 산업분야는 IT 및 전자,자동차, 섬유 등 제조업 분야

- ✓ 최근 무역분쟁, 코로나 등 불안정성 확대로 본국 또는 상대적 저인건비 인근 유럽국가로 이전하는 기업 발생



→ 프랑스 르노자동차, 중국에서 진행 예정이던 전기차 모터 생산을 프랑스공장으로 변경(6월)



→ 스위스 금융기술기업 Leonteq, 기존타지역에서 포르투갈에 서비스센터를 설립으로 변경(7월)



→ 스웨덴 대표 안경제조사 Synsam, 중국에서 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발표(10월)

- ✓ 유럽 주요국 적극적인 자국 생산확대를 위한 리쇼어링 지원정책 내세운 바, 제3국 기업은 유럽 내 현지화 강화가 더욱 중요



→ 프랑스 자동차분야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80억 유로 예산 편성, 공장 디지털화 지원 예정



→ 법인세율 26.4% → 15.8% 인하,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 ✓ EU 역내 교역비중은 코로나 이전 '19년 59%에서 '20년 8월 기준 60%로 소폭 상승, 향후 역내 교역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1. 진출전략 - “GVC 재편기, 유럽시장 진출 기회 선점”(3/5)

유럽

유럽시장 진출 기회 선점 전략 ① - “ M&A를 통한 新 GVC 진입 ”

✓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 유럽시장, M&A 및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기반 구축 강화 필요

➔ 코로나19로 파산신청한 우수기술 보유 한계기업 매물을 발굴, 인수를 통해 유럽내 밸류체인 진입 가능

*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유럽기업 부도율, 3.4%(20.6월 기준)에서 8.5%까지 상승 전망 ('21.6월까지)

유럽 M&A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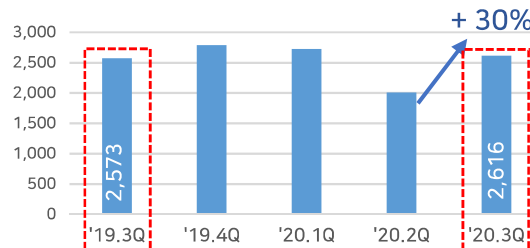
- ➔ 지난10년간 유럽 M&A 시장, 약 250% 성장 달성
- ➔ '19년 기준, 총거래1조 640억유로 (10,380건) 기록



* 자료원: Pitch book

분기별 유럽 M&A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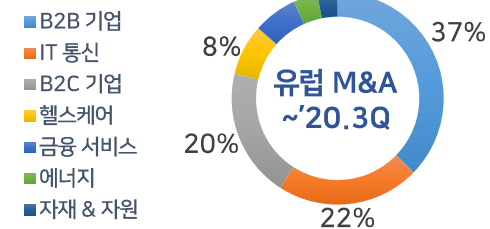
- ➔ '20년 3분기 M&A 거래량은 빠른 속도로 회복세
- ➔ 전년동기 대비 2%, 전분기 대비 30% 증가



* 자료원: Pitch book

분야별 M&A 거래량 비중

- ➔ B2B 기업에 대한 M&A, 총 거래의 37% 차지
- ➔ B2B> IT통신>B2C>헬스케어>금융>에너지 순



* 자료원: Pitch book

우리기업의 M&A 성공사례

➔ 2차전지 열처리 장비 독일 제조기업 인수 사례

- 한국기업 O사, 20년 1월, 2차전지 핵심소재인 탄소섬유 열처리장비 대표 독일기업 E사의 지분 100% 인수
- 15년부터 독일 E사와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경제적 어려움으로 19년 8월 파산신청한 E사의 지분 인수
- 이로써 독일기업 인수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 열처리 공정 전체에 대한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하는 계기 마련



1. 진출전략 - “GVC 재편기, 유럽시장 진출 기회 선점”(4/5)

유럽

유럽시장 진출 기회 선점 전략 ② - “유럽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다각화 수요에 적극 대응”

- ✓ 유럽 내 현지화 전략 외 유럽기업의 비용효율성보다 안정적인 대체 공급망 구축수요에 대응한 납품기회 적극 활용 필요

➡ 유럽주요기업의 250개사 중 66%가 중국으로부터의 소싱 축소, 52%가 기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소싱 축소 전망으로 응답

(‘20.4월 컨설팅회사 Abels&Kemmne)

■ 유럽무역관이 선정한 '21년 유럽기업의 한국 협력수요

Volkswagen(독일/자동차)	Audi(독일/자동차)	Bosch(독일/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향 :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박차, '16년 '전략 2025'발표를 통해 전기차 개발 및 상용화 노력 진행 중➡ 협력수요 : (소싱)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 및 커넥티카 부품➡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R&D팀 보유, 영문 소통 가능 전문 엔지니어, 전자부품분야 인증 구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향 : 자율주행분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공급업체 발굴 중➡ 협력수요 : (R&D, 소싱) 자율주행 시스템➡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R&D팀 보유, 영어소통가능 전문 엔지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향 : '21년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체제 구축, 연료 전지/배터리 기술보유 스타트업 협력 가능➡ 협력수요 : (소싱) 연료전지/센서부품➡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TS 16949 등 자동차 관련 인증, Sustainability 인증

1. 진출전략 - “GVC 재편기, 유럽시장 진출 기회 선점”(5/5)

유럽

ThyssenKrupp (스위스/자동차)



- ➔ 동향 : 자동차 경량화 관련 신소재 및 품목 관련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중
- ➔ 협력수요 : (R&D, 소싱) 자동차 조향장치, 경량화소재
- ➔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ISO 9001, ISO 14001, TS 16949, R&D팀 보유, 영어소통가능 전문 엔지니어

ENEL(이탈리아/에너지)



- ➔ 동향 :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및 터빈용 베어링제조 한국업체 발굴 진행
- ➔ 협력수요 : (소싱) 풍력발전기 부품
- ➔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R&D팀 보유, 영어소통가능 전문 엔지니어, 카테고리별 부품인증 보유

OW(스위스/에너지)



- ➔ 동향 : 25년까지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서 최대 1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 협력수요 : (소싱) 해상풍력기자재
- ➔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프로젝트 수행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 또는 품질 인증, 신속한 A/S지원

Attiko Metro(그리스/철도부품)



- ➔ 동향 : 21년 이내 아테네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을 계획하며 노선 운영에 필요한 지하철 전동차 소싱업체 발굴
- ➔ 협력수요 : (소싱) 지하철 전동차, 신호통신등, 전동차부품
- ➔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유럽인증, 유럽 내 설치/조달 레퍼런스, 그리스 내 영어가능 직원 등

Fincantieri(이탈리아/조선)



- ➔ 동향 : 조선 A/S 부품을 중심으로 한국 업체와 다수 협력,사이버보안, 항공부품 분야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중
- ➔ 협력수요 : (소싱) 조선부품
- ➔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영어소통가능 전문 엔지니어, 벤더등록 필수

Walgreen Boots(영국/미용기기)



- ➔ 동향 : 뷰티 스타트업과 합작브랜드 론칭 예정
- ➔ 협력수요 : (R&D, 소싱) 스킨케어제품
- ➔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다양한 피부 관련 진단기술 및 스킨케어 제품 보유

2. 진출전략 – “유럽 주요 기업의 Open Innovation 공략”

유럽











▶▶ 디지털 융합기술 관련 협력수요 확대

- ✓ 유럽 내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따라 디지털 융합기술* 관련 산업 육성 추진중
→ 디지털 융합기술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5G, 로봇틱스, 스마트팩토리, 핀테크, AI, 3D 프린팅 기술 등
- ✓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 자동차 업계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추진 가속, 기술협력 수요 확대

“유럽 기업의 CVC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진출 밑거름 확보”

- ✓ 주요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협력 수요 증가에 대응
- ✓ R&D 협력 형태의 차세대 GVC 진입 전략 모색 필요
- ✓ 연구개발, 디자인 등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중요
- ✓ 유럽 다수의 대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산하의 CVC 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중

I 유럽 주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네덜란드 ABN 사의 CVC로 주로 핀테크 주력, 육성프로그램 “YES” 운영
		프랑스 AXA그룹의 CVC로 지능형 데이터분석에 주력, 보험테크 핀테크, IoT 등
		독일 BASF사의 CVC로 차세대 전자소재(화학, 신소재, 디지털화)에 주력
		독일 Bayer AG사의 CVC로 차세대치료제(유전자변이, 자가면역질환)에 주력
		독일 Daimler AG사의 CVC로 첨단제조, 자동화, 차세대 동력장치에 주력, 육성프로그램인 Startup Autobahn 운영중

3. 진출전략 - “포스트 코로나 유망 산업을 통한 유럽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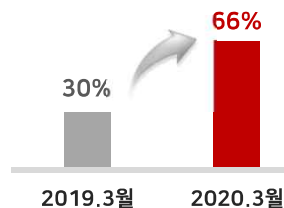
유럽

▶▶ 언택트 경제 확산과 “E-헬스 산업”의 부상

- ✓ 코로나 영향으로 부족한 의료인력과 비대면 수요가 큰 방역분야의 E-헬스분야 성장 가능성
- ✓ 유럽 글로벌기업의 신규 기술 협력수요 및 병원 등 공공조달 프로젝트 발주 확대
- ✓ 특히, 인건비가 높은 북유럽 국가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성장가능성 다대
 - [영국] 향후 10년간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솔루션 R&D에 800억 투자 예정
 - [덴마크] 향후 15년 내로 신축예정인 16개 병원 중 8개를 ICT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를 완비한 ‘Super Hospital’ 설립 예정.
비대면 의료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중
 - [핀란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디지털 헬스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Smart Life Finland’운영, 수요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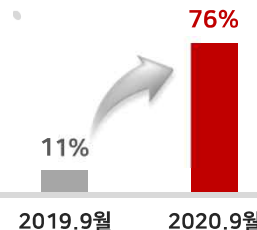
독일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66% 원격진료 및 온라인 상담 필요”



핀란드 원격진료 소비자 관심도

“76% 원격진료 관심”



국내 스타트업 성공사례



- 심방세동 진단용 초소형 탐지기기 개발사, '17년 독일 Bayer 운영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대상 최종 4개사중 1개로 선정
- '18년, 5만유로 자금 지원, 3개월간 베를린 소재 Bayer본사에 입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디지털헬스 분야 공동 기술협력, 기술 상용화를 위한 유럽내 사업모델 멘토링)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종료 후, 영국 및 네덜란드에 현지사무소 설립, 유럽내 유통 중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유망산업에서의 기회 찾는 것이 중요

유럽은 주요 진출대상국 중 진입장벽이 가장 높으나,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뉴노멀화로 새롭게 재편되는 '21년 유럽의 GVC를 선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



4. 진출전략 - “EU 그린딜 정책 활용 수혜산업으로의 진출 모색”

유럽

▶▶ EU 집행위, 친환경 그린딜 역점 추진 → 산업재편 가속화

- ✓ EU 집행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 전반에 ‘녹색전환’ 추진 중
 - ‘19년 12월 EU 그린딜 정책 발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 등 4개 분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계획 제시
- ✓ 특히, EU 펀드 (1.8조 유로, ‘21~’27)의 최소 30%를 그린딜 정책 분야에 배정,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 EU 집행위, EU 그린딜을 통해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시 발생한 탄소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 발표 (‘19.12월), ‘21년 2분기 중 법안마련 후 유럽 의회 / EU 이사회 동의를 거쳐 ‘23년 시행 예정

“유럽 그린딜 新정책 관련 기회요인 조기 포착, 신성장 수혜 산업으로의 진출 모색 필요”

- ✓ 유럽 각국, ‘21년 해상풍력, 친환경 건물 등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계획 → 관련 공공프로젝트 발주 증가 전망
 - EU, 그린딜 정책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독일) 건물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에 20억 유로 투입 및 태양광 풍력산업 (신재생 에너지) 일부 규제 완화, (영국) 학교, 병원 등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화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11억 파운드 할당(‘23년), (프랑스) 건물 에너지 효율관리 및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 사업에 200억 유로 예산 배정
- ✓ 전기·수소차 중심 생산 전환에 따른 관련 인프라 및 경량화 소재·관련 부품 등 차세대 기술 협력 수요 증가 전망
 - (EU) 그린딜 정책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공공충전소 100만개 설치 예정(‘25년) 및 ‘20년~’30년 100억 유로 규모의 혁신기금 (Innovation Fund)을 통해 대대적인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예정
 - (독일) 전기차충전소 및 전기차배터리 산업 투자25억 유로 배정 (‘20년6월), (프랑스) 8천만 유로 규모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 프로젝트 발표 (‘20년 1월)

An aerial photograph of a city, likely Seoul, with a blue overlay. The image shows a dense urban area with many buildings and a river. The blue overlay is a semi-transparent rectangle that covers the left side of the image.

IV

유망품목 및 서비스

1. 수출유망 품목(1/2)

유럽

코로나 진단키트



- EU 수출 298.88% 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백신개발 성공 이후에도 신속진단키트 수요증가 전망
- 코로나2차 확산세로 확산방지항체진단키트 사용확대

→ 주요수입국(증가율) : 독일(15.6%), 네덜란드(30.6%), 프랑스(9.22%), 이탈리아(14.6%), 스페인(33%) 등

소형 프로젝터



- EU 수출 127.4%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독) 코로나로 홈 엔터테인먼트시장 성장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소비 증가 → 기기수요 ↑)
- (핀) 한국점유율 및 인지도 상승중, 전문가용 프로젝터 시장성장

→ 주요수입국(증가율) : 독일(9.2%), 프랑스(2.9%), 영국(23.6%)

인스턴트 면류



- EU 수출 40.89% 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독) 빠르게 성장중인 품목, 쉬운 조리법으로 각광
- (프) 한국식품매장 체인이 설립 → 인스턴트 면류 수요 증가세

→ 주요수입국(증가율) : 영국(21.4%) 독일(4.9%), 스페인(5.12%), 덴마크(40.1%), 체코 (22.9%), 벨기에(11.8%) 등

의료용 초음파 영상기기



- (프) 한국산 상품점유율 큰 편 *초음파장비 : 5위
- (불) '21~27년 EU기금을 활용한 노후기기 교체 프로젝트 진행 → 다수 발주 가능성 대대
- (형) 고령화로 의료기기 수요확대

→ 주요수입국(증가율) : 헝가리 (39.3%), 불가리아(25%), 크로아티아(3.63%), 체코(46.5%)

공기청정기



- EU 수출 43.5%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스페인)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공기청정제품 관심 상승
- (형) 생산설비 증가에 따른 산업용 및 개인위생 가정용 청정기 수요 증가

→ 주요수입국(증가율) : 네덜란드(26.5%) 체코(5.4%), 벨기에 (10.2%)

조미 김



- EU 수출 6.59% 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독) 비건협회에서 슈퍼푸드로 소개, 비건시장과 맞물려 상승
- (프) 아시아식품 인지도 상승

→ 주요수입국(증가율) : 이탈리아(5.82%), 덴마크(36.1%), 네덜란드(61.5%), 체코(10.5%)

1. 수출유망 품목(2/2)

유럽

전기차



- EU 수출 43.49%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프) 정부의 적극적 전기차 구매 보조금정책으로 판매량 급증
- (오) 미래운송부문 핵심으로 Mobility 시장 관심 증가

→ 주요수입국(증가율) : 네덜란드(16.1%), 프랑스(74.1%), 영국(204.2%), 독일(53.7%), 덴마크(115.9%), 체코(253.9%)

웨어러블 기기



- EU 수출 17.6% 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독/네) 코로나 건강관리관심상승, 건강상태 모니터링 제품 수요 증가추세
- (프) '13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

→ 주요수입국(증가율) : 영국(12.1%), 프랑스(2%), 이탈리아(8.5%), 네덜란드(1.04%)

화장품



- EU 수출 12.3%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불) '14~19년 연평균 수입 80% 성장
- (크) 시장규모 1억달러 돌파,한국화장품 관심 확대
- (네) 인플루언서 등의 영향으로 주요 리테일 시장에 한국화장품 진출 확대
- (스웨덴) 한류열풍으로 현지 백화점 내 마스크팩, 기초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등 취급
- CPNP 인증획득이 관건,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마케팅 효과적
- 현지 대형 종합 유통망 내 뷰티섹션 또는 프랜차이즈 드럭스토어 입점이 대중 공략에 가장 적합

→ 주요수입국(증가율) : 프랑스(5.5%), 네덜란드(2.4%), 스페인(3%), 폴란드(13.5%), 체코(37.7%) 스위스(6.4%), 스웨덴(6.6%), 슬로바키아(1.13%), 핀란드(1.93%) 등

5G 설비기기



- EU 수출 10.6% 증가 ('20.6월, 전년동월대비)
- EU집행위 핵심정책인 디지털화와 맞물려 5G 공공프로젝트 예정
- 코로나로 비대면 문화 가속화, 5G 설비 투자 수요 ↑

→ 유망국가 : 독일

스마트 안경



- (독) 인더스트리4.0 이후 D.T.중인 제조공장에서 생산성 증가를 위해 스마트안경 도입
- (DHL) 물류센터 작업자에게 구글글라스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한 비전피킹 도입

→ 유망국가 : 독일

2. 수출유망 서비스(1/2)

유럽

원격근무 솔루션



- 코로나19 사태 후 원격근무자 수 대폭 증가. 특히 스페인 정부, '20년 9월 원격근무 법을 발표, 향후 원격근무 방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 유럽 내 다수기업,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원격근무 방식을 유지할 계획 발표

- 소프트웨어를 현지어로 제작,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원격근무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화상상담, 클라우드 서비스, 파일공유 부문에서 기존 경쟁사와의 차별성 필요

보안 소프트웨어



- 4차산업 관련 유망 산업.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화 가속화로 공유 클라우드,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필요성 증대
-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회 참여 및 사절단 참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 참가 기회 공략

- 한국은 대표적인 하드웨어 강국으로 유럽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 가능. 현지 관련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업체 니즈 파악이 중요

블록체인 및 핀테크



- 프랑스 정부, IT형 금융 생태계인 핀테크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 규제 완화, 자금지원 등 육성정책 개시
- 스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token/crypto-화폐와 ICO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Zug市에 Crypt Valley 구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중

- 각종 핀테크 포럼 및 현지 스타트업 행사 참여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현지기업과의 협업
- 현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 진출방안 모색 필요

E-Sports 및 게임



- 유럽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e-sports 시장 형성,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시장의 수요 확대중
- Barcelona Games World, 게임스컴 등 현지 전문 박람회 참가 추천

- 유럽진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지화' 현지어 또는 최소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 필요. 게임 장르별로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게임 인터페이스에 대한 조사 수행 필요

밀키트 및 음식 배달 서비스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여건이 악화되면서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량 증가 예상
- 베를린에 진출한 한인 스타트업 이치룩 아시아가 아시아 특화 밀키트를 통해 독일 시장 공략 중

- 유럽내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포장재 활용 추천
-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주문 방식과 비 접촉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현지 진출에 효과적

모빌리티 셰어링



- 유럽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전기자동차/스쿠터/킥보드 등) 확대
- 기아자동차, 스페인 정유기업 Repsol과 함께 스페인에서 Wible이라는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중

-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아직 테스트 초기단계로, 전기 충전시설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및 해당시청과 협업을 통해 중소도시에서 서비스 런칭하는 방법 고려

2. 수출유망 서비스(2/2)

유럽

가상피팅서비스



-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 각광, 패션기업들의 가상 피팅 서비스 수요 확대 예상
- 스페인 Zara 등 일부 대형 패션 기업들이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산업 전반에 보편화되지 않음

→ Inditex, Mango 등 현지 대형 패션 리테일 기업과 협업을 통해 가상 피팅 서비스 론칭하여 진출

스마트팜



- 불가리아 정부, 스마트팜 육성 정책 수립 ('20.5월)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 국내 스마트팜 기술은 영세 비닐 온실에 적합, 한국과 기후 및 농업 여건이 유사한 불가리아에 기술 수출 유리

→ 불가리아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한국 기술력과 불가리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활용, EU 공동 R&D 프로그램을 협력 수행하여 진출

스마트락 홈 솔루션



- 동유럽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주요호텔 및 에어비앤비 등 상업용 건물에 스마트락 도입 수요 증가
- 스웨덴의 ASSA ABLOY사 등 유럽 선진국 기업이 시장 점유

→ 신규시장으로 시장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필요
→ 진출유망 국가: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건설플랜트



- 동유럽 중심으로 EU기금 활용 각종 건설 프로젝트 추진중
- 세르비아의 경우, 2025년 EU가입을 목표로 정부차원의 공공프로젝트 발주 증가 추세

→ 폐기물처리, 소각장, 전력, 공항, 전자정부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로컬 EPC기업들과 제휴를 통한 진출 추진이 필요한 분야

물류자동화 서비스



-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물류산업내 자동화 가속중
-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물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재고 최소화, 작업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럽기업의 선호도에 맞춘 서비스 구성 필요

선박 엔지니어링



- 활용 분야: 선박 유지 보수, 장비 제조, 리모델링,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 그리스 기업 및 유럽기업이 선박엔지니어링 시장 주도중

→ 규모가 큰 선박일수록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요가 높은편. 유럽 내 그리스 선주사가 가장 큰 규모의 상선 보유중

감사합니다

유럽지역본부장 | kotra

